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5.(목)

한국수자원공사, 특정공법·자재 심사제도 기업간담회 개최

- 공모 절차 안내 및 주요 감점 사례 공유로 신기술 보유기업 참여 부담 경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1월 5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신기술 및 특허기술 보유기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공법·자재 심사제도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현장에 가장 적합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자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공법 및 자재를 대상으로 기술제안 공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공모 담당 부서와 심사 담당 부서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공모 현황과 결과는 'K-물산업지원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참여 기업들이 제안서 작성과 심사 준비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주 발생하는 서류 미비 및 감점 사례를 공유해 유망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히고 공모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K-물산업지원포털'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행사 당일에는 공모 담당 부서와 심사 담당 부서가 함께 참석해 실무 가이드를 제공했다. 전반부에는 공모 서류에 대한 적합성 확보 방안과 심사 대상 추천 시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이어 심사 절차 및 제안서 발표 평가 기준과 주요 감점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시간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평가 절차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우수 기술 발굴 체계를 지속해서 다듬어갈 예정이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제안 준비 과정의 실무적 어려움 없이 본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현장 중심의 기술 경쟁을 촉진해 우수 신기술이 적재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기후테크혁신처 기술협력부	책임자	부 장	김진권 (042-629-2521)
		담당자	차 장	정승운 (042-629-25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1월 5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신기술 및 특허기술 보유기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공법·자재 심사제도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2. 11월 5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특정공법·자재 심사제도 기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고 있다.